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의 매개 효과*

이 종 연[†]

김 복 미

충북대학교

본 연구는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 및 자기대상이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기대상이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여중생 259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높을수록 자기대상 수준과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 자기대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대상을 거쳐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중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이들에게 공감과 자기대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여중생, 부모 공감, 자기대상, 학교적응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종연,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043-261-2652, E-mail: jonglee@chungbuk.ac.kr

청소년기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에 잘 적응할 때 학업적·심리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으며 청년기와 성인기 이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산, 문재우, 2006). 그러나 최근 학교 부적응 학생 수는 급증하고 이들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한 조사(동아일보, 2010. 9. 1)에 따르면, 2009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2007년 10,969명 대비 16,267명으로 4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정서적·심리적인 문제로 학교에 대한 두려움, 좌절, 수치심 및 외로움을 경험하고(김혜래, 최승희, 2009), 학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약물남용 및 청소년 비행 등 학생범죄를 저지르다가(남영자, 박태영, 2009), 급기야 학업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적응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만큼 학교적응에 대한 관점이나 연구자에 따라 학교적응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이규미(2005)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로운 정의를 내리기 위해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기 까지 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학교공부, 친구 관계, 교사관계, 질서나 규칙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같은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중요

한 영역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들에서 학생들의 이러한 학교적응은 가족 요인(강유진, 문재우, 2005; 김경은, 최은희, 2010; 배정미, 2008),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강창실, 2008; 이경아, 정현희, 1999; 이현림, 천미숙, 2003), 친구 요인(임수경, 이형실, 2007), 학교관련 요인(서성진, 2008)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정환경과 가족,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가정은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은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집단으로 개인의 성격 및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요인 중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언어를 통한 보다 직접적인 양육행동으로써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언어를 통해서 언어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며 특히 청소년 자녀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최유진, 유계숙, 2007), 이처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심리 발달, 나아가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의 학교 공부와 진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 부적응 문제 등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도 줄어드는 시기이다(조용주, 2010). 청소년기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줄어드는 것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덜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경청하거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느낌과 관점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를 공감해 준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각하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며, 자녀의 정서와 함께하고 이를 언어적·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용주, 2010). 조용주의 연구들(조용주, 2010; 박선영, 조용주, 2011)을 보면, 자녀에게 공감을 잘 해주는 부모들은 자녀를 수용해 주고 지지적이며,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자녀가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도우며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여 자녀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갖는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문제에 따른 부모-자녀 간 갈등도 줄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의 공감이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이론들(박성희, 1996; Feshbach, 1987; Guerney, 1977; Kohut, 1971, 1977; Rogers, 1957, 1961; Sullivan, 1953)이 부모의 공감을 자녀의 정서, 인지, 대인관계, 이타행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Kohut(1971, 1977)은 그의 자기심리학 이론에서 자녀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건강한 자기 형성과 발달을 위해서 부모는 적절한 공감을 통해 자기대상 기능을 잘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이론에서 자기대상(selfobject)은 자기가 자기의 일부처럼 경험하는 대상이며, 대상이 가지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한 자기의 내적 경험을 뜻하

는 것이다(홍이화, 2009). 다시 말하면 자기대상은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대상, 즉 대인관계적인 의미에서의 대상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자기의 심리내적 경험을 지칭한다.

Kohut(1971, 1984)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세 가지의 자기대상 기능, 즉 거울 자기대상(mirroring selfobject), 이상화 자기대상(idedalized selfobject), 그리고 쌍둥이 자기대상(twinship/ alter-ego selfobject) 기능을 경험해야 건강하고 성숙한 자기를 발달시켜나갈 수 있다. 거울 자기대상 기능은 영아인 자녀가 자신의 활기와 위대함, 그리고 완벽함에 대한 내적 감각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고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고 찬사해주는 것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숙한 형태의 긍정적인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성숙한 형태의 찬사와 공감을 보일 수 있는 건강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구축하게 된다. 이상화 자기대상 기능은 아동인 자녀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자신이 평온하고 절대적이며 완벽하고 전능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강력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상한 안내자와 모델로부터 응답을 경험하는 것인데,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 안에 이상화된 가치와 삶의 목표들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쌍둥이 자기대상 기능은 아동이 현실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현실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고,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본질적으로 같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기가 보다 강화되고, 세상에 적응해나가는 데 필요한 재능과 기술을 계발해 나간다. Kohut은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기대상 경험들을 통해 응집력있는 자기(self) 구조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애 초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자기대상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특히 인생 초기에 부모가 적절한 공감을 통해 자기대상 기능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면 자녀가 건강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구축하지 못하게 되어 발달 결핍이 일어남으로써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런 자녀는 자기와 타인상의 과편화를 일으켜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갖게 되어,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불만족, 허무감, 기쁨을 모르는 삶, 건강한 자존감의 결여, 삶의 낭비, 맹목적 충성과 헌신, 마약 등 각종 중독증, 현실 도피, 자기 상실감, 심각한 외로움, 대인관계 기피, 자폐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이종연, 2010). 그러나 이렇게 정신병리 상태에 있는 내담자라도, 치료에서 치료자가 공감을 통해 내담자의 내적 상태를 이해해 주고,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기대상 기능을 제공해 주면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한 내담자는 타인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삶의 건조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적절한 기쁨과 좌절, 희망과 분노 등을 상황과 관계의 틀 안에서 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Kohut의 이론에서 자기대상 개념은 인간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Kohut의 이론에 기초하여 자기대상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논문

은 불과 몇 편에 불과하다. 목회상담 분야에서 세 편의 문헌 연구들(김병훈, 2004; 박상희, 2001; 홍이화, 2009)과 한 편의 경험 연구(김갑성, 2007)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심리적으로 성숙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자기대상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학교상담 분야에서는 한 편의 문헌 연구(이종연, 2010)와 세 편의 경험 연구(김미자, 2009; 김복미, 이종연, 2011; 박재성, 2012)가 이루어졌다. 이종연의 연구에서는 학교교육 장면에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교직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기대상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재성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자기대상 역할이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미자의 연구에서는 한국판 자기대상 욕구 질문지를 타당화하고 자기대상 욕구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김복미와 이종연의 연구에서는 자기대상은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상담자의 성숙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인간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부모의 공감과 자기대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Kohut (1971, 1977, 1984)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부모에게서 공감을 받고, 이러한 공감을 통해 자녀들이 자기대상 경험을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 기초하여 부모가 공감해 주는 것이 아동기 초기의 자녀들에게 직접 자기대상 경험을 제공해 주거나, 아동기 이후의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

에게도 자기대상 경험 수준을 높여 주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hut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 공감이 특히 Kohut이 강조한 자기대상 경험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여중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감을 부모가 보고하는 형식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공감의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공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조용주, 20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여중생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학생이 교사 및 또래 관계 문제, 집단따돌림 현상, 학교중

퇴나 자살충동과 같은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고(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이경남, 2007; 이해경, 2011), 많은 연구자들이 중학생 시기가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김용희, 1989; 이규미, 2005).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의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의 매개경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인 그림 1은 여중생의 부모 공감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대상을 거쳐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부분매개모형이다. 대안모형인 그림 2는 여중생의 부모 공감이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대상을 통해서만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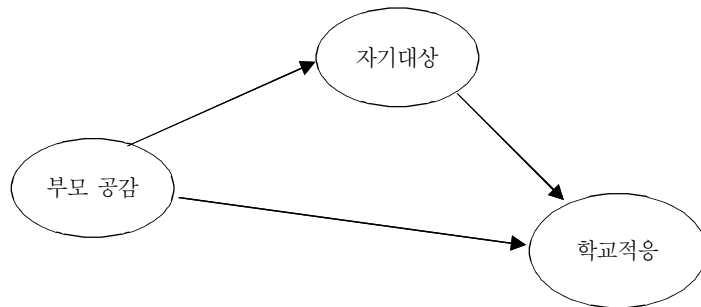


그림 1. 공감지각, 자기대상, 학교적응의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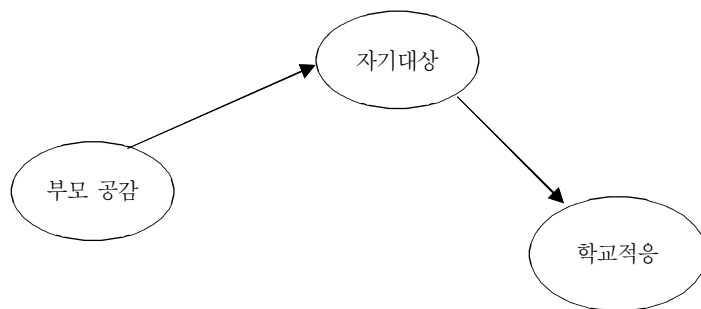


그림 2. 공감지각, 자기대상, 학교적응의 완전매개모형(대안모형)

매개모형이다. 이러한 매개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부모 공감과 자기대상이 학교적응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와 여중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방안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의 부모 공감, 자기대상, 학교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여중생의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은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충북의 청주시의 1개 중학교, 충주시 1개 중학교, 그리고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276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중 질문지의 여러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명은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대상은 총 259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중생들의 인적 배경별로 참여자수와 백분율을 보면, 지역과 학년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83명(32.0%)과 ‘충주시’ 100명(38.7%)으로 시지역 소재 중학교 여중생이 183명(70.71%)이었고,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여중생이 76명(29.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6명(33.2%), ‘2학년’ 72명(27.8%), 그리고 ‘3학년’ 101명(39.0%)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공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용주(2010)가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요인(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5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과민 정서반응은 조용주의 연구에서 다른 4개 요인들과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과민 정서반응을 제외한 4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요인별 측정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응답자의 지각 정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아니다’), 2점(‘아니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냉담한 정서반응’ 요인은 측

표 1. 부모 공감의 요인별 측정 내용

요소		측정 내용
인지적 요소	정서 지각	부모가 자녀의 정서나 상태에 대하여 알아차림
	관점 수용	자녀의 기분이나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함
정서적 요소	공감적 정서반응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염려를 보임
	냉담한 정서반응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지 않거나 자녀의 입장과 정서를 무시함

정 내용이 부정적이어서 역산하였다. 따라서 4 개 하위요인의 점수 범위는 5-20점이고 중앙 점수는 10점이며, 전체 점수의 범위는 20-80점 이고 중앙점수는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공감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의 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정서지각은 .76, 관점 수용은 .75, 공감적 정서반응은 .82, 냉담한 정서반응은 .76, 전체는 .91로 나타났다.

자기대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기대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2001)이 Kohut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정신적/영적 산소량의 측정(A Measurement Scale on the Individual level of Psychological & Spiritual Oxygen)’ 척도를 김갑성(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대상의 영역이 두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의 차원은 심리적 자기대상으로서 자기와 관련이 있는 실제 인물과 관련된 영역이고, 다른 하나의 영역은 영적 자기대상으로서 자기와 관련이 있는 신적인 존재와 관련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에게 실제 존재하는 자기대상 수준을 파악하여 부모의 공감반응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적 산소량 영역을 제외하고 심리적 산소량 영역만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대상 척도는 3영역, 즉 존경(이상화) 자기대상, 총애(거울)자기대상, 일체(쌍둥이)자기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영역별 측정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척도의 각 영역은 18문항씩으로, 이 척도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아주 그렇다’) 사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영역의 점수 범위는 18-90점이고 중앙점수는 54점이며, 전체 점수의 범위는 54-270점이고 중앙점수는 16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대상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기대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중생 259명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존경 자기대상 요인은 .85, 총애 자기대상 요인은 .89, 일체 자기대상 요인은 .86, 전체는 .95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규미(2005)가 중학생의 학

표 2. 자기대상 척도의 영역별 측정 내용

영역	측정 내용
존경 자기대상	자신이 이상화하는 인물, 단체에 대한 것과 이상화하는 인물과 단체에 대한 심리적 상태
총애 자기대상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인정해주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상태
일체 자기대상	일체 자기대상은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에 대한 것과 동질감을 받았을 때 생기는 심리적 상태

표 3. 학교적응 척도의 요인별 측정 내용

요인	측정 내용
학교공부	학업유능감과 학업가치
학교친구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성
학교교사	교사호감과 교사친밀감
학교생활	질서/규칙준수와 학교생활 만족

교적응 구성개념을 연구하여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학교적응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공부 요인은 8문항, 그리고 나머지 3개 요인은 10문항씩,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요인별 측정 내용은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응답자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 즉 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약간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약간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사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공부 요인의 점수 범위는 8-40점이고 중앙점수는 21점이며, 나머지 3개 요인(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점수 범위는 10-50점, 전체 점수의 범위는 38-190점이고 중앙점수는 11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중생 259명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학교공부는 .79, 학교친구는 .84, 학교교사는 .89, 학교생활은 .82,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및 자기대상이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고, 단순상관의 유의도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Curran, West와 Finch(1996)의 제안에 따라 자료의 정상성부터 확인하였다. 자료의 정상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간단히 검증된다.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규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0이상일 때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Klein, 2011).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의 왜도는 -.70에서 .052 범위, 첨도는 -.339에서 .796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상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모수치를 추정하는 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값 대신 홍세희(2000)가 권장한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채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모형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모형의 경로의 유의성과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을 검증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는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에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이 유용하다(홍세희, 2007).

결 과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및 자기대상과 학교적응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은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자기대상, 그리고 학교적응이다.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은 4개(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이고, 자기대상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은 3개(존경자

기대상, 총애자기대상, 일체자기대상)이며,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은 4개(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이다.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본 연구에 참여한 여중생 241명을 대상으로 측정변인들의 기초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음으로 여중생의 부모 공감, 자기대상, 학교적응의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변인들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r=.20 \sim .8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공감의 4개 측정변인들(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간의 상관계수($r=.45 \sim .66$)도 유의미하였고, 자기대상의 3개 측정변인들(존경자기대상, 총애자기대상, 일체자기

표 4. 부모 공감, 자기대상, 학교적응 측정변인들의 기초통계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ness)	첨도 (kurtosis)
부모 공감	정서지각	13.7	2.7	.05	-.11
	관점수용	14.6	3.0	-.53	.03
	공감적 정서반응	15.5	2.6	-.23	-.05
	냉담한 정서반응	13.8	2.9	-.09	-.10
	총점	57.6	9.3	-.13	-.29
자기대상	존경자기대상	48.7	9.8	.01	.63
	총애자기대상	50.3	9.7	-.12	.55
	일체자기대상	51.5	9.1	-.14	.44
	총점	150.5	26.7	-.05	.80
학교 적응	학교공부	25.9	5.0	-.03	.32
	학교친구	38.2	6.1	-.70	.59
	학교교사	31.2	8.2	-.02	-.34
	학교생활	33.4	6.3	-.13	.79
	총점	128.8	20.7	-.12	.76

표 5. 여중생의 부모 공감, 자기대상, 학교적응의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부모 공감				자기대상			학교적응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51***	1										
3	.66***	.65***	1									
4	.48***	.59***	.60***	1								
5	.44***	.32***	.41***	.29***	1							
6	.51***	.38***	.49***	.33***	.85***	1						
7	.41***	.28***	.35***	.20**	.78***	.78***	1					
8	.36***	.33***	.33***	.26***	.57***	.62***	.49***	1				
9	.33***	.30***	.35***	.29***	.46***	.54***	.57***	.50***	1			
10	.31***	.26***	.25***	.29***	.60***	.52***	.44***	.57***	.43***	1		
11	.36***	.36***	.38***	.33***	.54***	.55***	.46***	.65***	.52***	.57***	1	

주) 1: 정서지각, 2: 관점수용, 3: 긍정적 정서반응, 4: 냉담한 정서반응, 5: 존경자기대상,

6: 총애자기대상, 7: 일체자기대상, 8: 학교공부, 9: 학교친구, 10: 학교교사, 11: 학교생활

** $p < .01$. *** $p < .001$.

대상) 간 상관관계수($r = .78 \sim .85$)는 유의미하였으 며, 학교적응의 4개 측정변인들(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간 상관관계수($r = .43 \sim .65$)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부모 공감의 4개 측정변인들(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은 모두 자기대상 3개 측정변인들(존경자기대상, 총애자기대상, 일체자기대상)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학교적응 4개 측정변인들(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모두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대상 수준과 학교적응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대상 3개 측정변인들(존경자기대상, 총

애자기대상, 일체자기대상)은 모두 또한 학교적응 4개 측정변인들(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모두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중생의 자기대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 간에 자기대상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대상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자기대상을 매개로 하여서만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이 두 모형 중에서 어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를 알아보고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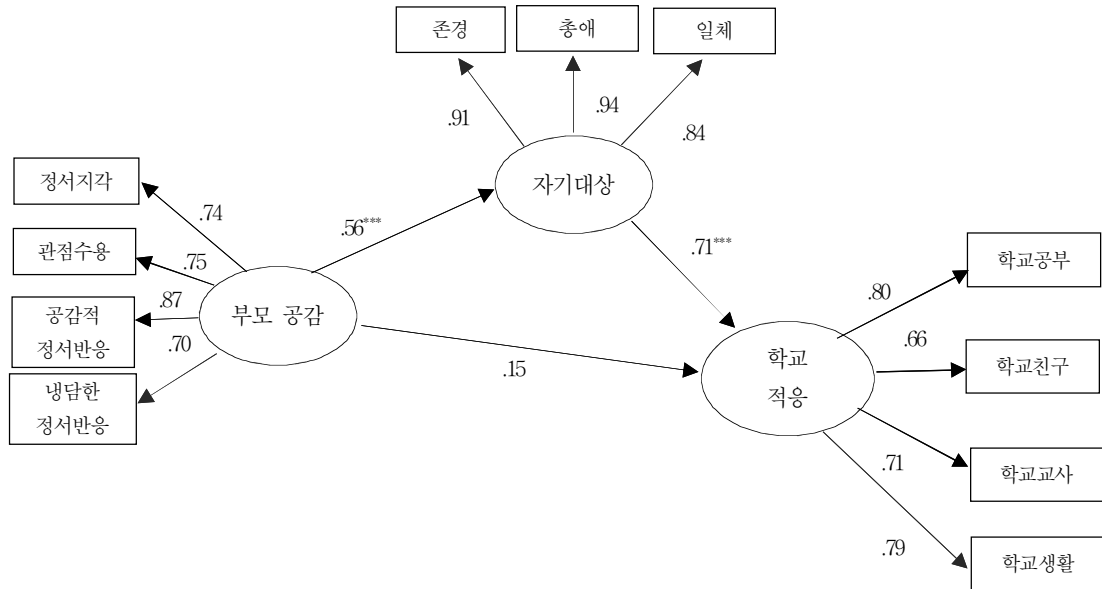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자기대상의 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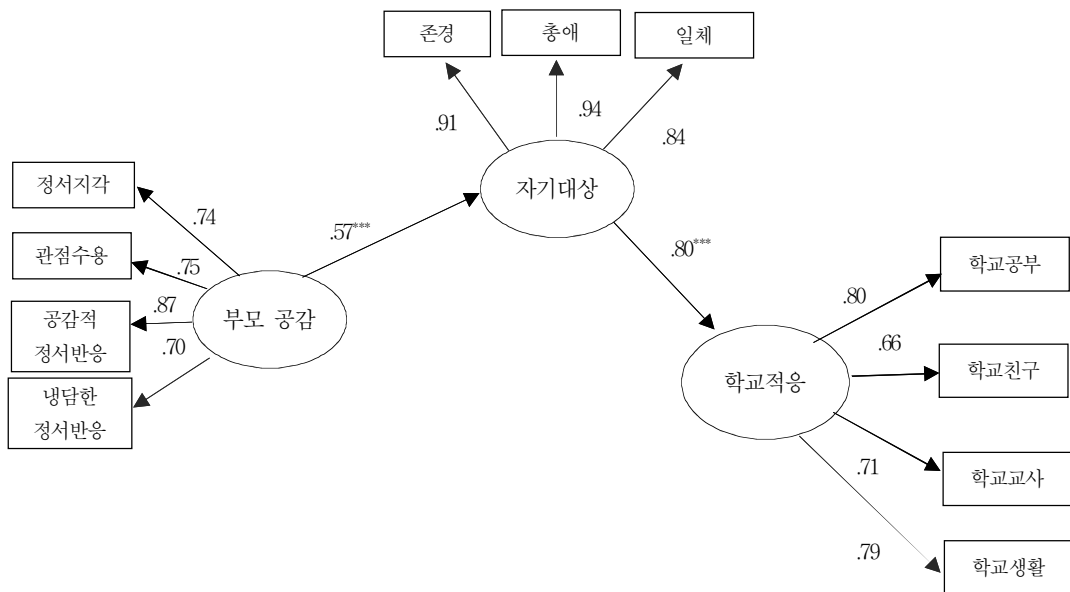


그림 4. 대안모형(자기대상의 완전매개모형)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각각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대상이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 간에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자기대상의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자기대상의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모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조사하였는데,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χ^2 값은 그 충족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보다 크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되고, RMSEA는 .10보다 작으면 나쁘지 않은 적합도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경우 TLI가 .943, CFI가 .958, 그리고 RMSEA가 .083, 그리고 대안모형의 경우 TLI가 .941, CFI가 .955, 그리고 RMSEA가 .085로 연구모형과 매개모형 모두 적합한 모

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자기대상의 부분매개모형)과 대안모형(자기대상의 완전매개모형)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5.3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자유도 1에 대한 χ^2 차이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차이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단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모형인 연구모형(자기대상의 부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대상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대상이 부모 공감

표 6. 심리사회적 성숙성의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TLI	CFI	RMSEA
기준	p값 .05이상	.9이상	.9이상	.10미만
연구모형(부분매개)	114.3 (df=41, p=.000)	.943	.958	.083
대안모형(완전매개)	119.6(df=42, p=.000)	.941	.955	.085

표 7. 연구모형(자기대상 부분매개 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경로계수(B)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SE)	t값
부모 공감 -> 자기대상	2.51	.56	.31	8.03***
자기대상 -> 학교적응	.39	.71	.04	9.80***
부모 공감 -> 학교적응	.38	.15	.16	2.32**

p < .01. *p < .001.

표 8.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의 경로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숫자는 표준화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 공감 -> 자기대상	.56*	-	.56**
자기대상 -> 학교적응	.71*	-	.71*
부모 공감 -> 학교적응	.15	.40*	.55**

* $p < .05$. ** $p < .01$.

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살펴볼 수 있다(홍세희, 2007). 본 연구에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부모 공감 -> 자기대상)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beta=.56$, $t=8.03$, $p<.001$),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자기대상 -> 학교적응)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beta=.71$, $t=9.80$, $p<.001$), 자기대상이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연구모형에서의 두 경로, 즉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부모 공감 -> 자기대상)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자기대상 -> 학교적응)에 대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공감이 자기대상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56($p<.05$)으로 유의미하였고, 자기대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71($p<.05$)로 유의미하였다. 간접효과는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값인데, 부모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40($p <.05$)이고, 총효과는 .55($p<.05$)로 유의미

하였다. 즉 여중생의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p<.05$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 공감은 자기대상을 거쳐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여중생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및 자기대상이 학교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이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중생이 부모에게서 공감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에서의 공부, 친구, 교사, 생활을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김경은, 최은희, 2010; 박경옥, 2009; 배정미, 2008; 최유진 외, 2007)

에서 가족의 건강성 요소들(기능적인 가족, 가족 간 의사소통, 유대감, 문제해결력 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공감도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건강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학자들과 연구자들(박성희, 1996; 조용주, 2010; Guernsey, 1977; Feshbach, 1987; Kohut, 1971, 1977; Rogers, 1957, 1961; Sullivan, 1953)은 부모가 공감을 잘 해줄 때, 부모는 자녀를 잘 수용해 주고, 욕구에 민감하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고 자율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자녀가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들이 부모의 공감이 이처럼 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을 경험적으로 지지해 준다.

둘째로,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은 자기대상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중생이 부모에게서 공감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현재 자신의 삶에서도 자기대상, 즉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인정해 주고,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이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반대로 부모에게서 공감을 더 못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이러한 인물이 현재 자신의 삶에 존재한다고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Kohut이 건강한 심리 발달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자기대상 수준을 청소년 시기에 있는 여중생들이 높게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Kohut(1971, 1984)은 한 인간의 건강한 심리적 자기(self)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어린 시절에 부모의 공감을 통한 자기

대상 경험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위해 물리적인 산소가 필요하듯이, 마음 건강을 위해 자기대상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이 결핍되면, 정신병리가 발생하는 등 적응 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부모교육과 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기 자녀들의 자기대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여중생의 자기대상 수준은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중생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인정해 주고,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자기대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공부, 친구, 교사, 생활을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Kohut(1971, 1984)은 자기대상이 한 인간의 건강한 심리적 자기(self)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대상 수준이 높으면 건강한 심리 발달과 성장, 적응을 하기 때문에 학교적응도 잘 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대상을 통해서만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처럼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중생이 부모의 공감을 지각하여 자기대상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해 주는 것도 여중생의 학교

적응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학교적응을 잘 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을 공감해 주어, 여중생인 자녀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인정해 주고,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자기대상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어야만 비로소 학교적응을 잘 하게 도와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부모로부터 어떤 이유로 어린 시절에 공감을 적절하게 못 받고, 그 결과 자기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도 학교 현장에서 좋은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공감을 받고 자기대상 기능을 경험하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사의 공감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들의 학업, 교사, 학교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김성은, 1997; 윤표중, 1993)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앞으로는 교사의 공감과 학생들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대상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공감 외에도, 여학생을 포함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기대상 경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좋은 친구,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기대상 수준이 낮은 학생들(예: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을 위해 이들의 자기대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예: 멘토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이들이 자기대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기대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Kohut(1971, 1977, 1984)의 자기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공감이 청소년기 학생들

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Kohut이 강조한 자기대상 경험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본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고 돕는 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모형도의 RMSEA 값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은 .083(부분매개모형),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은 .085로 .10 이상(나쁜 적합도)은 넘지 않았으나 .08미만(괜찮은 적합도)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에서 시지역도 큰 시지역과 중간 시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골고루 연구참여자를 표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에서 나온 적합도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즉 성별(남, 여), 지역별(도시, 농촌), 학교급(초·중·고등학교), 가정환경(결손가정 여부) 등의 변인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 보아 모형도의 RMSEA 값이 다르게 나오는지 다집단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을 부·모를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를 구분하여 공감을 측정하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일차적으로 주 양육자로서 유아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Kohut, 1971, 1977; Adler, 1931), 어머니가 적절한 역할을 못할 때는 아버지가 이차적으로 주 양육자로 영향을 준다.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자녀의 양육에 모두 고루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을 해주거나, 또는 둘 다 자녀의 양육에 관심과 공감을 주는 역할을 해주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감 정도가 서로 다른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 각 집단의 부모 공감 수준이 자기대상 수준 및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기대상은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추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부와 모의 공감의 영향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검증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im (2001)이 Kohut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자기대상 척도를 김갑성(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중학생의 자기대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96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 척도는 학생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문항의 내용이 다소 어렵거나 학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국내에서 아직 자기대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대상 척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기대상 수준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연구가 후속될 필

요가 있다.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면, Kohut의 이론에서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개념인 자기대상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강창실 (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성 (2007). 자존감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코헛의 자기대상론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은, 최은희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김미자 (2009). 내담자의 자기대상 욕구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훈 (2004). 코헛 이론에 기초한 심리적 치유경험의 본질과 기능 및 그 목회적응 연구: 교회는 자기대상의 환경. 호서신학, 8, 122-153.
- 김복미, 이종연 (2011).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상담자 성숙성 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12(2), 739-756.
- 김성은 (1997).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급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 (1989).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과정과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래, 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0(1), 160-182.
- 남영자, 박태영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5-33.
- 동아일보 (2010. 9. 1.).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문제로 학교를 중단한다.
- 박경옥 (2009). 중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 (2001). 나르시시즘과 목회상담: 자기대상 재경험을 통한 치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조용주 (2011). 부모의 공감과 청소년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와의 관계: 부모의 방치, 학대, 과잉기대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8(10), 35-63.
- 박성희 (1996).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재산, 문재우 (2006).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내 갈등과 건강보호 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인과관계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2), 91-107.
- 박재성 (2012).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미 (2008).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요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8(3), 453-464.
- 서성진 (2008).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와 학교적응수준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표중 (1994). 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공감적 이해 수준과 학생의 학교 학습태도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7).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와 대응방안.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13-226.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종연 (2010). Kohut의 자기심리학이 학교교육과 학교상담에 주는 시사점 탐색. *교육연구논총(충북대학교)*, 31(2), 33-46.
- 이혜경 (2011).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79-400.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511-541.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9(3), 169-183.
- 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 최유진, 유계숙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59-75.
- 홍이화 (2009). 한국문화 안에서 목회상담가의 자기대상(selfobject) 기능: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론의 한국적 적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315-33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bara.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3).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dler, A. (1931).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이재훈 역 (2005). A.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 271-29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ernsey, B. G.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ogan, R. T. (1975). Empathy: A conceptual and psychometric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119-127.
- Klein,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이재훈 역 (2002). 자기의 분석. 한국심리치료연구소.]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이재훈 역 (2006). 자기의 회복. 한국심리치료연구소.]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이재훈 역 2007].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gers, C. R. (1957).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ogers, C. R. (1961). *Freedom to Learning for the 80's*. Columbu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1 차원고접수 : 2012. 5. 06.
심사통과접수 : 2012. 6. 17.
최종원고접수 : 2012. 6. 20.

Mediating Effects of Selfob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Lee, Jongyeun

Kim, Bok-M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object, and school adjustmen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selfob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rent empathy and school adjustment. Two hundred fifty nin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showed that (a)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object, and school adjustment; and (b)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ob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were supported. These results mean that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does not directly have impacts on their school adjustment, but only through selfobject. It is suggested that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need to have opportunities which they can experience selfobject in home, school, and community throughout their lives. as well as parent empathy for their better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 empathy, selfobject, school adjustment